



최재왕 기자
남북정상회담 방북 취재기

아리랑 공연 감동속 전율 느껴

◇가는 길=도라산에서 출경 심사를 끝내고 버스가 출발했다. 군사분계선을 표시하는 노란색 띠가 눈에 띄었다.

입경 심사가 끝나자 북한 안내원이 버스에 탔다.

오전 8시42분. 개성공단을 지나 개성시에 들어서자 길 양쪽에 사람들로 넘쳤다. 한복 차림의 여성들, 경장의 남성들, 때때로 입은 어린이들. 평소 출근길 모습일까 아니면 연출한 것일까?

버스가 개성~평양간 고속도로로 접어 들었

다. 왕복 4차로 폭의 콘크리트 포장길인데 차로

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미뤄 아직 차량

이 많지 않아 왕복 2차로로 쓰고 있다는 짐작이

들었다.

들녘에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고, 코스모스와 들국화 등

들풀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어 가을 정취가 물씬하다. 사방

의 민둥산을 보니 떨간 나무와 큰 비 피해 이유 등이 짐작

됐다.

◇평양거리, 평양 사람=개성을 출발 2시간여만에 평양

에 도착하니 조국통일 3대 현장 기념탑이 버티고 섰다.

길 양쪽은 꽃을 든 사람의 바다. 언제부터 모였는지 알

수 없는 수십만 명을 헤아리는 평양 시민들이 질서 정연하게 노 대통령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과 노 대통령이 광장에 도착하자 군악대에 맞춰 군중들은 '만세'를 외쳤다. 평양 거리는 한산했다.

신호등은 작동되지 않고 '평양의 꽃'으로 불리는 여성 교통

보안원이 수신호로 간간이 지나는 차량을 정리하고 있다.

◇아리랑 공연=아리랑 공연은 소문대로 거창했다. 학생과 어린이 10만명이 1시간30분 동안 벌이는 집단 체조 등 각종 공연을 13만명의 관람객이 잠시도 눈을 떼지 못했다. 방문단의 반응도 다양했다. "감동적이다"는 사람도 있고, "섬뜩하다"는 사람도 있었다.

현란한 카드색션과 수만명의 실수 하나없는 섬세한 공연에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느꼈다는 게다. 또 빙자리 하나 없이 관중을 가득 채우고, 인공기나 고 김 일성 주석이 표현되며 우뢰같이 터지는 박수소리를 들으며 전율했을 것이다.

◇돌아오는 길=환송식이 열리는 인민문화궁전으로 가는 길 양쪽에 환송을 준비하던 평양 시민들이 서성이다 손을 흔든다. 얼굴엔 미소가 가득 담겼다. 정상회담 결과에 만족한 모양이다.

평양~개성간 밤길. 평양에서 조금 떨어지자 버스가 아무리 달려도 빛이 보이지 않는다. 갑자기 네온불 가로등으로 환해졌다. 통통튀던 길도 매끄럽다. 우리은행과 패밀리마트가 눈에 띈다. 바로 개성공업지구다.

/매일신문 jwchoi@msnet.co.kr

수십만 환영인파 일사불란…숙소 엄격 통제

◇예측 불가능한 평양=취재단의 숙소인 고려호텔의 프레스센터는 통신·통신·통행이 마비된 단절의 장소였다. 인터넷이 되지 않아 들고간 노트북은 워드프로세서로만 사용됐고, 호텔밖 출입도 엄격히 통제돼 길 하나 건널 수조차 없었다.

일정도 수시로 바뀌었다. 김 위원장이 참석하는 행사는 시간과 장소가 들쭉날쭉했다. 2박 3일간 취재진이 김 위원장의 육성을 단 한차례도 취재할 수 없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후보가 5일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개막식 참석차 광주를 방문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있다. 손 후보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죄송하다. 모바일 투표가 남아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고, 김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 후보의 얘기를 경청했다.

/나명주기자 mja@

"남북 경협에

10조원 필요"

현대경제연 전망

이번 남북정상간 합의된 경협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자금소요는 최대 112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2007 남북정상 선언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이번 남북정상간 합의된 경협사업에는 최대 112억달러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한화로는 지난 4월 환율을 기준으로 10조2천600억원에 달한다.

분야별로 보면 해주특구를 500만평 개발하는 데 46억달러, 개성공업지구 2단계 개발에 25억달러, 해주항 확장에 3억달러, 개성·신의주철도 개보수에 15억달러,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에 3억달러, 안변과 납포 조선협력단지 건설에 2억달러가 들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

남북 단일팀 구성

이달중 본격 협상

7년 만에 성사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의견 접근을 이룬 베이징을 끝으로 단일팀 구성방안이 이 달 중 본격적인 실무협상을 들어갈 전망이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하고 4일 밤 늦게 서울로 돌아온 김정길 대한육군장관 대한우리민족위원회(KOC) 위원장은 베이징을 끝으로 남북단일팀 협상이 결렬됐다는 일부 보도와 달리 남북한 양측은 단일팀을 구성할 가능성성이 오히려 아주 높다고 강조했다.

김정길 체육회장은 이날 "오늘 평양에서 열린 환송 오찬 도중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나눈 대화가 일부 방송에서 방영되면서 다소 오해가 빚어진 것 같은데 (남북 올림픽위원회는) 베이징을 끝으로 단일팀 구성에 대해 아주 앞전적인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DJ "남북정상회담 국민에 희망줬다"

어제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개막식 '평화선언' 발표

김대중 전 대통령은 5일 '2007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 "남북정상 회담의 성공은 반길 만한 일이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다"며 거듭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2007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개막 오찬에서 "이번 정상 회담은 남북이 함께 살아가는 경제적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북한에 풍부하게 있는

마그네슘, 텐스텐 등을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제) 우리도 북한의 무한한 지원을 캐내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통일을 서두르면 문제를 생길 수 있으며, 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개막식장에서 발표된 '세계 디자인 평화선언'을 기념하는 메시지를 통해에서도 남북정상회담의 의의를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막된 2007 광주비엔날레 행사장에는 호서대, 금과공과 등 단체 관람객을 비롯 시민 5천여명의 발길이 이어졌다.

와 평화의 가치를 담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광주에서 처음으로 발표됐다.

김 전 대통령은 세계디자인평화선언 기념 메시지에서 "6·25회전 성공에 이어 남북정상회담도 성공리에 마무리되 한반도에 평화와 남북간의 화해 협력관계가 한층 더 촉진되게 됐다"며 "이 모든 것이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평화선언 정신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의의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막된 2007 광주비엔날레 행사장에는 호서대, 금과공과 등 단체 관람객을 비롯 시민 5천여명의 발길이 이어졌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光日만정

- 김종우



때맞춰 유행 되려나 보다

鄭 '원샷 경선' 중재안 수용

신당 파행경선 수습 국면… 손·李측 "전수조사 선행돼야"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당 지도부의 '원샷 경선' 중재안을 수용함에 따라 파행을 거듭했던 국민경선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 후보는 5일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선 판이 깨져서는 안 된다는 대의와 원칙 사수 입장에서 많이 고민했다"며 "그러나 당을 위해 다시 한번 저를 버리겠다"고 밝혀, 당 지도부의 '원샷 경선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정 후보는 또한, "우리는 서로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니라 한 배를 타고 있는 동지"라며 "상호비방을 즉각 중지하는 한편 정책, 비전으로 경쟁하는 공정한 선거로 전환, 결과에 깨끗이 승복할 것을 약속하자"고 제의했다.

특히, 정 후보 측은 ▲남은 8개 지역 선거인단에 대한 전수조사 즉각 실시 ▲모바일 투표 선거인단 명부 공개 ▲손, 이 후보의 13개 불법 선거사례 철저 조사 ▲당직자 중립성 훈련에 대한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당 지도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손학규, 이해찬 후보 측은 14일 동시 경선 참여 방침을 밝히면서도 그 이전에 무더기 불법 선거인단 접수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 선거 캠프 소속 의원들은 "정 후보가 종족적 불법 행위에 대해 진실로 사과하고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없는 경선은 무의미하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시 설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 검토해야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 문제를 둘러싸고 전남도와 한국도시철도공사 간에 논란이 뜨겁다.

전남도는 5일 도시철도공사가 '불가' 통보를 해둔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를 다시 시의기로 했다. 철도공사는 최근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려는 노선은 경제성이 없고 수송수요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기본계획변경 등에 2년여가 소요되고 노선 연장 17km에 7천억 원의 사업비가 증가해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남도는 호남고속철이 오는 11월 8일 개항 예정인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도록 함으로써 무안공항이 활활 해운의 거점공항 역할을 할 수 있는 광역 고속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안공항이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활성화된다면 경제성은 당연히 해결될 문제다. 정부는 호남고속철의 무안공항 경유 문제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광주체전 성공, 시민 참여에 달려 있다

오는 8일 광주에서 개막되는 제 88회 전국체전이 이를 앞으로 다가왔다. 광주시는 "시민체전"·"문화예술체전"·"빛의 체전"·"민주·인권·평화 체전"을 표방했다.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바탕으로 광주의 특성을 전국에 알려 문화도시, 민주·인권·평화도시로 거듭 나겠다는 구상이다.

손님맞이는 이미 끝났다. 각종 경기장 개·보수공사를 마쳤고 전국체전 개·폐회식 및 각종 문화이벤트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 광주시는 친절과 질서 지키기, 시가지 청결,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선수단에게 광주의 각별한 정을 전달할 예정이다.

광주체전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16개 시·도와 해외동포 선수단 등 3만여명이 참가한다. 전국체전 전후에는 디자인비엔날레를 비롯, 충장로축제, 김치축제 등 다양한 문화

이벤트가 선보인다. 지난 1993년 제 74회 대회 이후 14년만에 열리는 광주체전은 광주의 이미지를 새롭게 심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광주시는 이번 전국체전을 통해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광주 유치 달성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체전 기간 광주를 찾는 IOC위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체전이 성공하면 광주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이고 국제지도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킬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시민들의 열기다. 체전이 다가오면서 시가지는 꽂으로 뒤덮이는 등 축제 분위기지만 시민들의 참여는 기대 이하라는 평이다. 시민 모두가 광주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감동'을 안겨줄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광주체전의 성공 여부는 시민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미 쇠고기서 또 등뼈… 검역 중단

정부, 소갈비 개방, 광우병 위험물질·내장 불허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협상에 앞서 광우병위험물질(SRM) 7가지와 꼬리, 내장, 사골 등 부산물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30개월 미안'이라는 연령 제한도 고수할 예정이나, 갈비의 경우 예상대로 개방 쪽으로 기대되며 기대되며 알렸다.

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검역 관계방역협의회에서 참석한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이같은 입장장을 설명하고 방어 논리의 보강을 위한 조언을 구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미국산 쇠고기에서 현행 한미 간 수입조건상 광우병위험물질(SRM)로 규

정된 등뼈가 다시 밭견돼 검역이 잠정 중단됐다.

농림부는 "지난달 7일 선적돼 부산항에 도착한 미국산 쇠고기 18.5t(618상자) 가운데 1상자(30.3kg) 속에서 등뼈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에서 SRM이 발견된 것은 지난 8월초 등뼈 발견 이후 두 번째다. 이에 따라 농림부 등 검역 당국은 일단 잠정적으로 전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중단 조치를 취했다. 공식 검역 중단 발표는 이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후 늦게나 발표될 예정이다.

/